



5면

학생자치타운·실험동물센터·약학대학 증축추진
전북대, 내년 시설 확충 예산 500억여원 확보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음 10월 24일) 제26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북도, 오늘부터 28일까지... 추후 연장 가능 지역 상황 따라 진안·무주·장수 1.5단계로 총 472명상 확보, 역학조사지원반 편성·운영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방침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8일부터 12월 28일(3주간)까지 전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하루 평균 447명 환자 발생으로 2.5단계에 도달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미 2단계 조치를 시행중인 군산, 전주, 익산, 완주(이서면)는 물론 12월 8일(수)부터 도내 전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환자 발생이 적은 진안·무주·장수군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도내 환자발생 추세는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과의 밀접모임, 종교 시설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중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 발생에 불과하나, 11월에만 177명, 12월은 6일까지 7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2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해 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병상 부족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도는 군산의료원 45병상, 남원의료원 61병상 총 106병상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지난 4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시설인 김제 생활치료센터(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김제시 부령면)에 110병상을 추가 확보해 본격 운영하고 있어 12월 7일 현재 총 472명상을 확보, 211명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병상은 261명상이다.

전북도는 또한 동시에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문성이 불필요한 업무에 일반공무원이 포함된 역학조사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여러 시점에서 마스크

고 결핵식당,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핵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8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4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 혼동방지와 방역수칙 조기 정착을 위해 해 도와 시군 홈페이지, SNS, 대형전광판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고, 특히 전북도 연말연시 3대 행동수칙인 모임자제, 타지역 방문자제, 방문·모임후 3일간 접촉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행정과 민간 투-트랙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당초 표준점검 30%에서 전수점검으로 확대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는 어찌라구”

돌봄전담사 2차 파업 예고... 도교육청 “공백 최소화”

지난 1일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를 열어 회의를 진행했지만 인권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9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도내 초등 돌봄교실은 422개교 중 417개교에 744명이 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전담사들의 파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데 따른 것으로, 현 4시간 근무에서 8시간 근무(전일제)로 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차파업 기간 중 초등 돌봄교실 공백 우려에 대해 전북교육청도 비상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초등돌봄 대응 준비를 위한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업 당일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불면이 없도록 마을 돌봄시설을 안내하는 등 단위학교 여건을 고려한 돌봄 교실 운영 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마을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적극 활용한 계획이다. 특히 정규과정 종료 후 하교시까지 교실이나 독서실도 전면 개방한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 실정에 맞는 돌봄 운영과 현장 확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파업 참가로 정상적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며 “이번 2차 파업 기간 동안 미 참여 학교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6일 강행된 초등보육전담사 총파업에서 전체 1만 1859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4902명(41.3%)이 파업에 동참 전국적으로 35% 정도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정은성기자

“취소와 멈춤, 거리두기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

최훈 행정부지사, 코로나19 관련 대도민 호소문 발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성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최훈 행정부지사는 7일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방침을 밝히며, “취소와 멈춤, 거리두기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2단계 격상은 정부가 8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능동 조정 방침에 따라 무주와 진안·장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조정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위중하고 지금 당장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위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취소와 멈춤 그리고 철저한 거리두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모임은 취소해줄길 바라며 불필요한 이동 역시 잠시 멈춰달라”며 “모임이 있었다면 최소한 3일간은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도내 코로나19 환자는 11월에 177명, 이달 들어서도 6일 만에 1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병상 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최 부지사는 의료체계 보강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방침도 밝혔다.

최 부지사는 “현재 전담치료병상과 무증상 경증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472명상을 확보했고, 앞으로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검사수요와 환자 폭증에 대비해 공무원을 투입 역학조사지원반을 강화하고 다중 이용시설 전수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또 “취소와 멈춤 그리고 철저한 거리두기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백신이다”며 “도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에 동참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성기자



최훈 행정부지사는 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방침을 밝히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음시의회
www.jcc.or.kr